



제11회 임직원 수련 및 단합대회 성료 청평가든수련원, 300여명 참가



본회가 주최하고 회장단 및 가평육계분회(분회장 이의정)가 주관한 제 11회 임직원 수련 및 전국양계인 단합대회가 지난 12일부터 13일 까지 양일간에 걸쳐 경기도 가평소재 청평 수련원에서 300여명의 양계인 및 관련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강광파 상임이사가 “안전한 양계산

물의 생산과 소비자의 의식변화”에 대해, (재) 국제농업개발원 이병화 원장이 “국내외 시장경제동향과 21세기를 향한 양계산업 전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특별 강연이 있었으며, 농림수산부 안덕수 축산국장을 초청해 양계인들과의 양계시책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는데 양계인들은 3시간이 넘게 자리를 지키며 질의 응답을 벌여 큰 관심도를 나타냈다. 13일에는 오락경기와 단체관광(양수발전소)을 통해 회원 상호 간의 유대를 강화했는데 족구, 계란나르기, 풍선 티뜨리기, 줄다리기 등 4종목으로 진행된 오락경기에서 양평육계분회(분회장 지충근)가 종합우승을, 동두천채란분회(분회장 송복근)가 준우승을, 서산육계분회(분회장 김종철)가 장려상을 각각 차지하였다.

한편 의식행사에 이어 감사패 및 공로패 수여식이 있었는데 강문달 충북양계축산업협동조합장에게 감사패를, 박승봉(일죽농장, 안성) 고문과 김광철(민정농장, 가평) 총무에게 공로패를 각각 수여하였으며, 닭고기 소비홍보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자동차타기 현상퀴즈에서 1위로 당선된 나미선(경기 오산)씨와 2위로 당선된 강재의(문경시), 이인재(강동 성내)씨에 대한 시상식도 가졌다.

노계 수매비축 실시

본회는 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과 연계하여 최근 계란값을 안정시키고 장기 불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노계를 도태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노계수매비축을 실시키로 조치하고 각 지부 분회에 통보하였다.

- 다 음 -

1. 수매비축 기간 : 1996년 6월 20일부터

2. 수매가격 : 수매 당시 현시 시가 수매

3. 수매량 : 무제한

4. 기타

노계도태를 희망하시는 분은 수매 비축 지정업체 (0455-63-7250)로 직접 신청하시기 바라며 수매비축 지정업체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노계 수매를 거부할 때는 본회 (02-588-7651)로 연락바란다.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전면적용에 대한 건의서 제출

본회를 비롯한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는 지난 4일 정부(신한국당 대표)에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 다 음 -

국민의 복리증진과 농민 대변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당에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축산업은 생산비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비 등 생산원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이 절대 열세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절대 열세인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전면 적용이 우선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배합사료 업체에서는 국제곡물가 등의 인상을 이유로 배합사료 가격을 불과 수개월 사이에 두차례나 인상 조치하여 생산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축산농민의 10여년간의 숙원 과제인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전면 적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참으로 답답한 실정입니다.

작년에 부업규모농가에 영세율을 적용조치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부업규모를 상향조정하여 부업규모의 120%로 영세율 적용범위를 확대 조치토록 귀당에서 노력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업농을 제외 한것은 WTO체제에서 우리나라

축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정책으로 제시한 정부의 전업농 육성정책과도 상반되는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다행히 올해초 귀당 정책위에서 '96년내에 전면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도록 개정을 약속해 주셨기에 우리 양/축가는 그 약속이 구호성이 아닌 반드시 지켜질 것으로 믿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생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속에 새로 구성된 15대 국회는 농민의 숙원과제 해결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믿으면서 다시 한번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전면 적용을 건의 드리오니 우리의 간곡한 요구를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장 최준구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김남용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장 전동용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6월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구천석)가 지난 5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금티푸스가 전국적으로 발생이 확산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는데 가금티푸스 예방 백신을 사용하면서도 정확한 사용방법을 알지 못해 피해가 확산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계가격이 낮아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노계전문도계장을 통한 비축사

업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되었다.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6월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최원악)가 지난 25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란수입에 따른 여파로 닭 값이 생산비 이하를 밑돌면서 농가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복을 앞둔 입추의 열기로 올 해 복기간 중의 닭값은 낙관적이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계열농기에서는 여전히 결제일이 늦어 고통이 따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출하의 어려움이 기중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연계하여 공동출하를 위해 계근소 설치 등이 시급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종계분과위원회 개최

6월 종계분과위원회(위원장 김교석)가 지난 12일 가평 청평가든 수련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는 임직원수련 및 단합대회 행사기간 중 이루어 졌는데 농림수산부 안덕수 축산국장이 함께 자리를 해 최근 문제시되는 종란수



입과 관련한 현안 문제를 논의하는 등 광범위한 의견교환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검정위원회 개최

제 46회 육용계검정 성적 검토



'96 제 2차 검정위원회(위원장 오봉국)가 지난 24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차 검정위원회 회의록 요약보고에 이어 제 46회 육용계검정 최종성적을 검토하였다. 기타사항으로 부화과정에서 부화율과 관계해 중지란, 사통란 등에 대한 정확한 기재를 통해 연구의 폭을 넓려야 함을 강조했고, 육용계검정시 5주에는 체중측정을 실시하지 않던 것을 출하체중 감소현상 등 시장동

향에 따라 측정, 기록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난가가격조절을 위한 대책 협의회 개최

본회는 최근 저난가가 계속되면서 6개월 이상 다운폭이 심화되고 있어 농가들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17일 대책회의를 갖고 현안문제를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계란유통협회로부터 계란유통질서 확립에 대한 의견이 본회에 통보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졌는데, 고시가격을 현실화하자는데 있어 상인들도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장마철이 끝난 비수기를 기해 서로 의견을 절충시킬 경우 성과가 클 것으로 내다보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대형농장에서 출하한 노계들이 다시 소농장으로 유입되어 생산에 가담하고 있어 오히려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난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망하였다.

종계, 부화업계 당면현안에 대한 대책회의 개최

최근 종란 수입 문제 등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종계, 부화업의 당면 현안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책회의가 지난 25일 본회 회의실에서 종계, 부화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종란수입에 따른 문제점을 논의하면서 지금까지 정부와 계열사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화, 종계인들의 단합된 힘이 부족했다고 평가하고 전국 지역을 대상으로 조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노태모 사장을 준비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을 구성, 협회를 구심점으로 일을 추진해 갈 것에 합의 하였다.

해외 연수교육 파견

본회는 개량사 제 31501-123호('96. 6. 13) 사업에 의거 국제화 시대를 맞아 가축개량 전 산망 구축과 관련 해외 관련기관의 전산망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닭경제능력검정소에 근무하는 이민균씨를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카나다에 연수교육차 파견하였다.

신입직원채용

본회는 총무부에 근무하던 박민화씨가 의원면직됨에 따라 임혜숙(성덕여상 졸업)씨를 신입직원으로 채용하였다.



△임혜숙